

정서 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적 관련 변인: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현 양식

정 윤 경* 박 보 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개인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적 관련요인으로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현을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547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서 표현성, 정서표현양가성과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을 조사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정서 표현 정도는 자녀의 정서 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과 높은 관련을 맺음이 드러났다.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이 높을수록 자녀의 친밀 정서와 긍정적 정서의 표현 수준은 높고 정서표현양가성은 낮았다.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긍정적 정서 표현 수준은 낮으며 정서표현양가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고된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구별된 네 군집(긍정상-부정하, 긍정상-부정중간, 긍정하-부정하, 긍정하-부정상) 간의 정서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긍정이 높은 두 집단의 자녀들이 긍정이 낮은 두 집단보다 낮은 정서표현양가성과 높은 긍정적, 친밀 정서 표현을 나타냈다.

주요어: 정서표현성, 정서표현양가성(갈등),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현

개인 고유의 정서적 특성은 자신의 기질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통합되어 발달되는 것이다 (Denham, Renwick, & Holt, 1991; Denham, Zoller, & Couchoud, 1994; Sarni, 1989). 가정은 개인이 가장 빈번하고 강하게 정서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적 맥락이며 정서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특히 어머니는 정

서와 관련된 기준을 내면화하고 행동을 획득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회적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자녀의 정서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과 맺는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서 정서의 사회적 발달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과거 많은 연구에서 정서의 표현은 개인의 심리

*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M-2007-B0002-00014)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음.

* 교신저자: 정윤경, E-mail: benijeong@catholic.ac.kr

적 적응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서적 특질로 관심을 받아왔다. 가령,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억제제는 스트레스와 침투적·반추적 사고와 신경계 활동 증가의 만성화를 초래해 신체적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류준범, 2001), 고민스러운 일이나 정신적 충격을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나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음이 밝혀져왔다(Mendolia & Kleck, 1993; Pennebaker, Hughes & O'Heeron, 1987). 또한 정서 표현의 억제제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을 어렵게 함이 밝혀져왔다(Salovey & Mayer, 1990; Greenberg & Safran, 1989). 반면, 정서 표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심리적 안녕감이 높으며(King & Emmons, 1990), 타인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DePaulo, 1992; Sullins, 1989), 정서적 지지를 얻는데 유리함이 밝혀져, 개인의 정서 표현이 건강하고 유능한 삶의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사회 및 정서 심리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표현수준이 낮은 개인들 중에도 심리적 불편을 경험하지 않거나 표현 수준이 높더라도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 큰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현상(Bell & Byrne, 1978)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서 표현양가성의 개념을 제안하였다(Emmons & Colby, 1995; King & Emmons, 1990; Mongrain & Emmons, 1993; Pennebaker, 1985; Sarason et al., 1991). 정서표현양가성(갈등)*이란 정서 표현에 대한 욕구가 개인의 다른 욕구나 사회적 규준과 같은 다른 목표와 갈등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하면서도

억제적 노력을 기울이거나 감정을 표현한 다음 후회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연구자들은 정서 표현의 수준이 높고 낮음 못지않게 표현에 대한 욕구와 억제에 대한 요구 간의 갈등이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Pennebaker, 1985). 실제로 몇몇 연구들은, 정서표현양가성은 정서표현성을 통제하고도 자존감 및 삶의 만족을 포함하는 적응지표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신경증이나 우울 같은 심리적 고통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밝혀(최해연, 민경환, 2007; King, 1993; Mongrain & Vettese, 2003; Mongrain & Zuroff, 1994), 정서표현양가성이 역기능적 정서 조절의 핵심적 특징임을 증명하였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과도하게 갈등하고 억제하거나 이를 표현하더라도 후회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반응성의 내면에는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사회적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최해연, 2008). 또한 이러한 부정적 신념과 높은 갈등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측면이 관여하고 있을 것이다(노지영, 정윤경, 2010). 특히 어머니의 정서적 양육 방식은 무엇보다 핵심적인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정서가 경험되고 조절되는 과정이 대인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 자녀는 서로에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장 강렬하고 잦은 정서를 활성화시키는 관계이기 때문이다(Dunn & Brown, 1991).

실제로 정서 발달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은 어머

* 선행 연구자들은 정서 표현에 대한 갈등(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과 정서표현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을 함께 사용하며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둘 중 정서표현양가성이란 용어를 일관적으로 사용하여 논문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다.

니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정서적 유능성과 높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가령, 어머니가 어린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용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감정이입도 잘하는 반면(Boyum & Parke, 1995; Cassidy, 1994; Eisenberg & McNally, 1993), 어머니가 통제가 강하고 체벌과 거부가 높은 경우 자녀는 감정이입이 낮고 역기능적인 정서 조절 능력을 보임을 밝히고 있다(McFadyen-Ketchum et al., 1996). 하지만 이와 같은 어머니의 일반적 양육태도는 정서 발달과의 구체적 관련성을 설명하기에 과도하게 포괄적이다. 자녀의 정서의 특성을 형성하는 어머니의 특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자녀의 정서 경험과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Eisenberg, Cumberland와 Spinrad(1998)는 정서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모델을 제안하고 정서 발달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 행동(Emotion Related Parenting Behavior)으로 정서 표현,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그리고 정서에 대한 대화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서 관련 양육 행동들은 전통적인 양육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일반적이고 모호한 양육 태도(Parker, 1983; Parker, Tulping, & Brown, 1979)와는 달리 정서의 사회화 과정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부모의 양육 행동을 기술하고 개입하는 데 보다 유용한 개념이다(노지영, 정윤경, 2010). 이와 같은 정서 관련 어머니 양육 특성 중 본 연구에서는 ‘정서 표현’이 자녀의 정서 발달과 맺는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정서 표현은 자녀와의 직접 적인 정서적 상호 작용 뿐 아니라 가정 내 정서적 분위기와 애정 수준을 결정 짓는 주요한 요인이다(Eisenberg,

Gershoff, Fabes, Shepard, Cumberland, & Losoya, 2001; Halberstadt, 1986, 1991; Halberstadt, Cassidy, Shifter, Parke, & Fox, 1995). 우선 가정 내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자녀의 정서 표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Cassidy, Parke, Vygotsky, & Braungart, 1992). 가령,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일수록 걸음마기 유아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Denham, 1989).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회고적 연구에서도 원가족의 표현성을 높이 평정한 대학생들의 정서 표현 수준이 높음이 보고되었다(Balswick & Avertt, 1977; Halberstadt, 1986). 이는 어머니의 표현성이 아동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자녀가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학습하고 적절한 표현 양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의 정서 표현 특성과 그 내적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Dunsmore & Halberstadt, 1997). 즉, 어머니가 자신의 정서를 풍부하게 표현하는 경우 아동은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나 자신의 정서 인식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솔직하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다양한 정서 표현의 관찰 경험은 적절한 정서 표현 양식에 대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표현에 대한 어려움이나 갈등이 높아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반면, 어머니가 정서를 잘 표현하지 않는 경우 자녀는 정서 표현이 무례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표현양식을 학습하기 위한 기회가 제한되어 높은 갈등을 경험하고 억제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 표현이 자녀의 정서 표현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핵심적 내적 과정인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반드시 검증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관련성을 직접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게다가 기존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이 자녀의 건강한 정서 표현과 유능한 정서 조절과 관련됨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나,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과 관련된 자녀의 정서적 특성에 대해서는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Halberstadt, Crisp & Eason, 1999; Davies & Cumming, 1994). 가령, 가정 내 부정 정서의 유형이 강압적 (negative-dominant)이나 유순한가 (negative - submissive)에 따라 부정 정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랐으며(Thompson & Meyer, 2007), 부모와의 갈등이 높아도 그것이 해결되는 경우 아동의 정서적 유능성은 오히려 더 높았다. 또한 Kochanska(2001)는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부모는 부정적, 긍정적 정서에 대하여 모두 이야기하지만 불안정적인 부모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밝혀, 부정적 정서에 대한 표출과 소통 또한 안정되고 친밀한 정서 발달에 필요한 것임을 제안하였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 정서의 표현이 험악한 가정 내 분위기를 조장하는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동이 정서 표현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고 표현 전략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되는 양가적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연구는 그것 자체의 강도와 빈도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가 표현되는 보다 전반적 조건과 맥락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이 모두 낮은 수준인 가정 내의 자녀들의 정서 발달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정적 정서 표현이 높더라도 긍정적 정서 표현 또한 함께 높은 가정 내 분위기의 자녀들은 어떠한 정서적 특성의 발달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 수준이 각각 자녀의 정서적 특성과 맺는 관련성뿐 아니라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 정도를 함께 고려한어머니의 정서표현적 특성이 자녀의 정서 표현과 이에 대한 양가적 태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이 자녀의 정서적 유능성 발달과 관련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 표현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즉,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 표현은 부정적 정서 표현의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보호적 요인임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다룬다.

첫째, 회고된 어머니의 긍정 정서 표현성은 자녀의 정서 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가?

둘째, 회고된 어머니의 부정 정서 표현성은 자녀의 정서 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가?

셋째, 회고된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의 양상에 따른 자녀의 정서 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아동이었을 당시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 양상을 회고하고 현재 자신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양가성을 보고하게 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아동기 형성된 정서적 특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부모의 정서 표현 특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며(Mongrain &

경기도 지역 대학 학부생 54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 15부가 제외되어 총 532명의 결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 중 남학생은 180명이며 여학생은 352명이었다.

측정도구

정서 표현성 질문지(EEQ)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서 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해 하정(1997)이 번안한 King & Emmons(1990)의 정서 표현성 질문지(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실제 표현 행동에 초점을 두고 정서 표현성을 측정하는 16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하위요인으로 친밀 정서 표현과, 부정적 정서 표현 그리고 긍정적 정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구성된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척도 신뢰도는 .71이었다. 친밀 표현성은 .63, 긍정적 정서 표현성은 .60, 부정적 정서 표현성은 .50 이었다.

정서표현양가성 질문지(AEQ)

본 연구에서는 King과 Emmons(1990)의 정서 표현 양가성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를 최해연(2008)이 번안·타당화한 자녀 정서 표현의 양가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AEQ는 정서 표현, 정서 관리, 정서 규제, 미묘한 정서 표현에 대한 고민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갈등과 억제행동을 측정한다. 척도

제작시에는 긍정적 정서표현양가성 10문항, 부정적 정서표현양가성 18문항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두 하위 요인 군집 간 상관관이 높아 단일 구성 개념으로 본다는 King과 Emmons(1990)의 견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단일 요인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구성된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척도의 총점은 0-140점 범위이며, 전체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0 이었다.

회고된 어머니의 가정 내 정서 표현 (Retrospected SEFQ)

대학생에 의해 회고되어진 지각된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해 백미애(2002)가 사용한 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와 Fox(1995)의 가정에서의 자기표현 질문지(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표현을 각각 측정하도록 고안된 부모의 자기 보고 형태이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척도만을 자녀 회고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아동이나 청소년이었을 때 어머니에 대하여 회고한 내용에 근거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녀와는 다른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SEFQ가 ‘가족구성원이 해 준 일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셨다’와 같이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와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여 자녀가 느낄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 관련 정서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피검자가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동일한 척도로 정서 표현성을 측정하는 데서

Emmons, 1993), 부모의 정서 표현 특성이 자녀의 표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기에서부터 이후 청소년, 성인기에 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Balswick & Avertt, 1977; Denham, 1989; Halberstadt, 1986) 가정 하에 실시된 것이다.

표 1. 자녀의 정서적 특성과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1							
2	.74**	1						
3	.31**	-.41**	1					
4	.29**	.34**	-.09	1				
5	.23**	.22**	.00	.70**	1			
6	.24**	.31**	-.11**	.76**	.29**	1		
7	.19**	.13**	.08	.63**	.30**	.24**	1	
8	-.01	-.17**	.23**	-.31**	-.20**	-.12*	-.18**	1

* $p < .05$, ** $p < .01$

1. 모의 전반적 정서표현성, 2. 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3. 모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4. 자녀의 전반적 정서표현성, 5. 자녀의 친밀함 표현성, 6. 자녀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7.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8.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였다. 전체 척도는 40문항으로 긍정적 정서 표현 영역과 부정적 정서 표현 영역의 2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긍정적 정서 표현이 23문항, 부정적 정서 표현이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82, 긍정적 정서 표현성은 .93, 부정적 정서 표현성은 .89 이었다.

분석절차

회고된 어머니의 긍정 정서 표현성과 부정 정서 표현성이 자녀의 정서 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고된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의 양상에 따른 자녀의 정서 표현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 수준에 근거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고 군집에 따른 정서 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정서적 특성간의 상관관계

자녀의 정서적 특성들 간의 관련성과 이들과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자녀의 정서 표현성과 정서 표현양가성 간에는 선행 연구(King & Emmons, 1990)와 일치되게 나타났다. 즉, 정서표현양가성이 높다고 보고할수록 긍정($r = -.12, p < .01$), 부정($r = -.18, p < .01$), 친밀함($r = -.20, p < .01$)의 정서 표현 수준이 낮았다.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현의 수준과 자녀의 정서 특성 간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성은 자녀의 정서 표현성과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친밀 표현성: $r = .22, p < .01$, 긍정적 정서 표현성: $r = .31, p < .01$, 부정적 정서 표현성: $r = .13, p < .01$), 자녀의 정서 표현양가성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

$= -.17, p < .01$).

즉,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 표현이 높은 수준이었다고 회고할수록 자녀의 정서적 표현 수준은 모두 높았으며 표현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에 의해서 회고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성은 자녀의 정서 표현성과의 관련성이 일관적이지 않았다. 자녀의 긍정적 정서 표현성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나($r = -.11, p < .01$), 자녀의 친밀감과 부정적 정서 표현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은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과는 정적 상관을 드러냈다($r = .23, p < .01$).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에 따른 군집과 이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

상관 분석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 수준은 자녀의 정서적 특성에 긍정적인 관련성을 맺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부정적 정서의 표현은 그 관련성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일차원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특성과 관련을 맺기보다는 어머니 개인내의 다른 정서(가령 긍정적 정서)의 표현 수준과 상호작용하여 그 관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 수준에 근거하여 군집을 구성하여 이에 따른 자녀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양가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회고된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 수준을 투입하여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군집을 도출하였다. 각 군집의 회고된 어머니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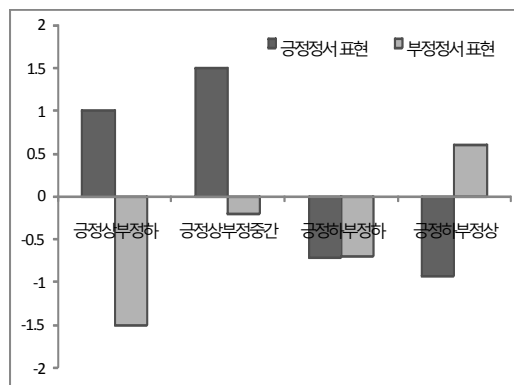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에 따른 군집프로파일

서 표현수준(SEFQ의 합산)이 표 2에 제시되었으며 각 군집의 양상이 그림 1에 제시되었다.

군집 1은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집단(213명, 43%)으로 ‘긍정상-부정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는 평균보다 높지만 부정적 정서 평균 수준을 보이는 집단으로(92명, 17%) ‘긍정상-부정중간’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모두 평균보다 낮은 집단(106명, 20%)으로 ‘긍정하-부정하’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4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는 평균이하로 부정적 정서는 평균보다 높게 회상한 집단(120명, 22%)으로 ‘긍정하-부정상’로 명명하였다.

표 2. 군집별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긍정상	긍정상	긍정하	긍정하
	부정하	부정중간	부정하	부정상
긍정	97.3	104.7	71.5	68.3
정서	(15.3)	(16.1)	(14.5)	(13.6)
부정	24.7	38.9	32.7	46.1
정서	(8.26)	(10.0)	(9.1)	(8.3)

표 3. 어머니의 정서 표현에 따른 자녀의 정서 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

어머니 자녀	1 긍정상-부정하	2 긍정상-부정중간	3 긍정하-부정하	4 긍정하-부정상	사후검증
친밀감표현	2.8(.73)	3.2(.82)	2.4(.55)	2.6(.64)	1=2>3=4
긍정정서표현	3.8(.81)	3.9(.99)	3.43(.85)	3.4(.79)	1=2>3=4
부정정서표현	3.1(.70)	3.3(.97)	2.85(.65)	3.1(.93)	2>1=4>3
정서표현양가성	76.6(14.52)	74.7(15.50)	83.4(16.42)	86.2(16.47)	1=2<3=4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현에 따라 구별된 군집에 따라 자녀의 정서 표현성 및 정서표현양가성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네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녀의 정서적 특성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정서 표현 범주에 따라 자녀의 친밀 표현성, $F(3, 528) = 11.19, p < .01$, 긍정적 정서 표현성, $F(3, 528) = 15.59, p < .01$, 부정적 정서 표현성, $F(3, 528) = 5.21, p < .01$, 정서표현양가성, $F(3, 528) = 8.76, p < .01$,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 표현 형태에 따라 자녀의 정서특성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다음과 같다(표 3).

먼저 자녀의 정서 표현 중 친밀감과 긍정적 정서에 대한 표현은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를 높게 부정적 정서를 낮게 (군집 1: 긍정상-부정하), 또는 평균 수준 정도의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다고 회상한 집단(군집 2: 긍정상-부정중간)이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모두 낮게 표현했다고 회상한 집단(군집 3: 긍정하-부정하)과 긍정적 정서는 낮게 부정적 정서는 높게 표현하였다고 회고한 집단(군집 4: 긍정하-부정상)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은 군집 2(긍정상-부정

중간)에서 가장 높았으며 군집 1(긍정상-긍정하)과 군집 4(긍정하-부정상)에서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과 부정적 정서 표현이 모두 낮은 것으로 회고한 집단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은 어머니가 긍정정서는 낮은 수준으로 부정 정서는 높은 수준으로 표현했다고 회상하는 집단(군집 4)과 어머니의 긍정, 부정 정서 표현이 모두 낮은 것으로 회상한 집단(군집 3)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어머니의 긍정 정서는 높고 부정적 정서 표현은 낮거나(군집 1) 평균 정도로 회상한 집단(군집2)의 자녀들이 가장 낮은 수준의 정서표현양가성을 보고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서 표현성과 이에 대한 갈등이 어떠한 사회환경적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결과물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아동기의 어떤 경험이 정서표현에 대하여 부정적 신념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표현에 대하여 높은 갈등을 경험하고 유연하게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가를 탐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발달의 관련 변인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정서발달과 관

런된 양육 행동으로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상관 분석 결과, 자녀가 회상한 어머니의 긍정 정서 표현 수준과 자녀들의 긍정, 부정 친밀함의 정서 표현 수준 간의 높은 관련성을 드러냈다. 즉,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 표현 수준이 높았다고 회상한 자녀들은 자신도 긍정적이고 친밀한 정서를 풍부하게 표현했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 정서의 표현이 높았다고 회상한 경우 자녀들의 부정적 정서 표현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이 가정 내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녀가 자유롭게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했을 뿐 아니라 솔직한 정서 표현에 대한 긍정적 가치와 신념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표현에 대하여 갈등을 많이 경험하지 않고 부정적인 정서라도 자연스럽게 솔직히 표현하도록 이끌었을 가능성을 제안한다. 반면,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자녀의 정서적 특성 간의 관련성은 간단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회상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 수준은 자녀의 긍정적 정서 표현과 부적인 상관을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과 친밀함 표현과는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갈등적인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Halberstadt, Crisp & Eason, 1999; Davies & Cumming, 1994). 이는 서론에서도 제안되었듯이 부정적 정서는 그 표현의 기능과 제시하는 메시지가 단순하지 않아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표현의 맥락이나 다른 유형의 정서적 표현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자녀의 정서적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의 표현 수준에 따라 구별되는 어머니

정서적 양육 패턴을 알아보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가 긍정 정서는 높은 수준으로 부정정서는 낮은 수준으로 표현했다고 회상하는 집단, 긍정 정서는 높게, 부정정서는 평균 수준으로 표현했다고 회상하는 집단, 부정 정서와 긍정 정서 모두 낮은 수준으로 표현했다고 회상하는 집단, 긍정 정서는 낮게 부정정서는 높게 표현했다고 회상하는 네 개의 집단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구별된 집단의 자녀들의 정서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정서 표현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는 높게 부정적 정서는 낮게 표현했다고 회고한 자녀들(군집1)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는 높게 부정적 정서는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회상한 자녀들(군집2)이었다. 이들은 긍정적 정서와 친밀감 표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표현을 보였다. 반면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 표현 수준을 모두 낮게(군집3) 또는 긍정적 정서는 낮게 부정적 정서는 높게 표현한 자녀들(군집4)의 경우 자신의 정서를 많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양가성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군집3(긍정하-부정하)과 군집4(긍정하-부정상)의 자녀들은 군집1(긍정상-부정하)과 군집2(긍정상-부정중간)의 자녀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정서표현양가성을 보고하여 역기능적 정서 조절양식을 발달시켰을 가능성을 드러냈다. 군집분석에 따른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일차원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은 현상을 드러내 주었다. 즉, 어머니가 평균 수준으로 부정 정서표현을 나타내도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와 동반될 때(군집2) 자녀의 정서적 결과는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또한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현 수준이 낮더라도 긍정 정서 표현도 함께 낮을 경우(군집3), 자녀들의 정서적 결과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 정서 표현의 기능과 역할을 제안한 것이다. 가정 내 어머니의 풍부한 정서 표현은 긍정정서이든 부정정서이든 자녀가 정서표현과 관련된 지식과 신념을 획득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이는 자녀에게 타인의 다양한 정서표현을 관찰하도록 할 뿐 아니라 자신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정서 표현 방식 및 조절 전략을 획득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는 정서 표현과 관련된 긍정적 신념과 가치를 형성하도록 하여 자연스런 정서 표현의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Halberstadt, Crisp & Eaton, 1999).

특히, 부정적 정서 표현과 관련된 학습은 더욱 중요한데 이는 부정적 정서가 더 정교하고 복잡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조절된 양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가정 내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이 이러한 학습에 필요한 기회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정서 표현의 역기능적 측면으로 그 역할이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높으면서 긍정적 정서가 낮은 군집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낮은 정서표현성과 높은 정서표현양가성을 지님을 드러내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적 정서 표현이 가진 역기능적 측면을 제안한다. 동시에,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의 수준이 평균 정도이면서 긍정적 정서 표현의 수준이 높을 때 자녀가 건강한 정서적 특성을 발달시킴을 보여준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 표현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강하고 빈번한 긍정적 정서 표현이 부정 정서표현에 의해 험악해질 수 있는 가정 내 분위기를 완화하여 자녀가 부정적 정서 표현에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이 모두 낮다고 회고한 자녀들이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으며 모든 유형의 정서에서 억제가 높은 특성으로 성장했음을 드러낸 본 연구의 결과 또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머니 정서 표현의 중요함을 제안하는 것이다. 낮은 수준의 어머니 정서 표현은 자녀에게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며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신념을 학습하도록 할 수 있다(노지영, 정윤경, 2010). 또한 어머니의 정서 표현 억제는 부모 자녀간의 부족한 정서 상호작용의 신호로 자녀가 적절한 표현 규칙과 전략을 획득하고 정서 표현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파악할 능력을 획득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게 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 표현이 자녀의 정서 표현의 행동적 측면 뿐 아니라 기저의 심리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무엇보다 가정 내 풍부한 정서 표현이 건강한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제안하였다(Cassidy et al., 1992; Eisenberg et al., 1998; Taumoepeau & Ruffman,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서적 특성의 발달적 근원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향후 해결되어야 할 연구 문제들을 남겼다.

우선 본 연구는 다양한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를 가정하는 포괄적 구조 모형을 제시하지 않고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이라는 단편적인 정서 관련 양육 특성을 가지고 자녀의 정서특성을 설명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뿐 아니라 다양한 부모-자녀 정서 특성을 고려한 연구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직접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 회고적 보고를 통해 ‘지각된’ 어

니의 개인 특성 및 양육 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갖는다. 물론 몇몇 선행 연구들은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보고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더 관련된다 고 보고하고 있으나(Rohner & Pettengill, 1985; Parker, 1983), 실제 부모의 특성은 자녀의 보고와 다를 수 있고 회고 보고에는 다양한 인지적 편향이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가 스스로 보고한 정서적 특성과 자녀가 보고한 부모의 정서적 특성 간 관계를 밝혀 이와 같은 연구 방식의 문제와 제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하며, 부모-자녀 간 정서적 특성의 관련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노지영, 정윤경 (2010).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따른 아동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신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57- 72.
- 류준범 (2001). 분노의 다차원적 특성과 신체 건강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미애 (2002). 부모의 정서표현에 따른 유아의 감정조망수용능력과 감정조절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해연 (2008).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90.
- 하정(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Bell, P. A. & Byrne, D. (1978). Repression-sensitization. In H. London & J. E. Exner (Eds.) *Dimensions of Personality*. New York: Wiley.
- Balswick, J., & Avertt, C. P. (1977). Differences in expressiveness : Gender, interpersonal orientation and perceived parental expressiveness as contributing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121-127.
- Boyum, L. A., & Parke, R. D. (1995). The role of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593-608.
- Cassidy, I. (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228-249.
- Cassidy, J., Parke, R., Vygotsky, L., & Braungart, J.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Davies, P.,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6(3), 387-411.
- Denham, S. (1989). Maternal affect and todd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368-376.
- Denham, S. A., Renwick, S. M., & Holt, R. W.

- (1991). Working and playing together: Prediction of preschool social-emotional competence from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2(2), 242-249.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298-936.
- DePaulo, B. M. (1992). Nonverbal and self-present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1, 203-244.
- Dunn, J., & Brown, J. (1991). Becoming American or English? Talking about the social world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In M. H. Bornstein (Ed.), *Cultural approaches to parenting* (pp. 155 - 172). Hillsdale, NJ: Erlbaum.
- Dunsmore, J. C., & Halberstadt, A. (1997). How does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affect children's schemas?. In W. Damon, & K. C. Barrett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no. 77, pp. 45-68).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 Eisenberg, N., Gershoff, E. T., Fabes, R. A., Shepard, S. A., Cumberland, A.J., Losoya, S. H., et al. (2001).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social competence: Mediation through children's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 475-490.
- Eisenberg, N., & McNally, S. (1993). Socialization and mothers' and adolescents' empathy-related characteristic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 171-191.
- Emmons, R. A., & Colby, P.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47-959.
- Greenberg, L. S., & Safran, J. D. (1989). Emotion in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44, 19-29.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rnold(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pp.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lberstadt, A. G. (1986). Family socializat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tyles and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4), 827-836.
- Halberstadt, A. G. (1991). *Maternal expressiveness & emotionality: Socialization of children's expressivenes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51 093)
- Halberstadt, A. G., Cassidy, J., Shift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logical Assessment*, 7, 93-103.
- Halberstadt, A. G., Crisp, V. W., & Eaton, K. L. (1999). "Family expressiveness: A retrospective

- and new directions for research", In P. Philippot, R. S. Feldmans, E. Coats(Eds), *The social context of nonverbal behavior*(pp. 109-15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chanska, G. (2001). Emotional Development in Children with Different Attachment Histories: The First Three Years. *Child Development*, 72(2), 474-490.
- King, L.A. (1993). Emotional expression, conflict over exp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 601-607.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Mcfadyen-Ketchum, S. A.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1996). Patterns of change in early childhood aggressive-disruptive behavior :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ions from early coercive and affectionate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67, 2417-2433.
- Mendolia, M. and Kleck, R. E. (1993). Effect fo Talking About a Stressful Event on Arousal : Does What We Talk About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2), 282-293.
- Mongrain, M. & Emmons, R. A. (1993). *Influence of induced mood on dependency, self-criticism, conflict, and goal appraisals*. Unpublished manuscript, York University.
- Mongrain, M. & Vettese, L. 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p545.
- Mongrain, M. & Zuroff D. C.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negative life events: Mediators of depressive symptoms in dependent and self-critical individu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 447-458.
- Parker, G. (1983). Parental overprotection: A risk factor in psychosocial development. Sydney: Grune & Stratton.
- Parker, Gl, Tulping, H., & Brown, L.B.(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52, 1-11.
- Pennebaker, J. W. (1985).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r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liction. *Canadian Psychology*, 26, 82-95.
- Pennebaker, J. W., Hughes, C. F., and O'Heeron, R. C. (1987). The Psychophysiology of Confession: Linking Inhibitory and Psychosomatic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4), 781-793.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2), 524-528.
- Saarni, C. (1989). Emotional intelligence :How emotions and relations become integrated. In Thompson, R. A. (Ed). *Socioemotional Development* (115-182). London: Univ. of

- Nebraska Press.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rason, B. R., Pierce, G. R., Sherarin, E. N., Sarason, I. G., Waltz, J. A., & Poppe, L. (1991).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s. *Journ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73-287.
- Sullins, E. S. (1989). Perceptual salience as a function of nonverbal expressivenes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4), pp584.
- Taumoepeau, M., & Ruffman, T. (2008). Stepping Stones to Others' Minds: Maternal Talk Relates to Child Mental State Language and Emotion Understanding at 15, 24, and 33 Months. *Child Development, 79*, 284-302.
- Thompson, R., & Meyer, S. (2007). Socialization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family. In J. Gross(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pp. 249-268). New York: Guilford Press.
-
- 1차 원고 접수: 2010. 10. 15
수정 원고 접수: 2010. 11. 12
최종 게재 결정: 2010. 11. 13

Retrospected Mother's Emotional Expressivness as a Developmental Correlate of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Yoonkyung Jeong

Bo-Eu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retrospected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s a developmental correlate of their off-spring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For these ends, 547 College stud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including EEQ, AEQ, and retrospected SEFQ of their mo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college student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their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are highly correlated to their retrospection of their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When they retrospect that their mother's expression of positive emotion was high, their positive and intimate emotional expression are high and their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was low. When they report that their mother' expression is low both in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they were also low in their emotional expression and most high in their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Keywords: Emotional Expressiv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Retrospected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